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1회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회되었다. 우리나라는 금 6, 은 6, 동 2개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지난 4년간 건디기 힘든 훈련을 제대로 소화한 선수들의 공이 가장 크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쇼트트랙에 한정되었던 메달이 빙상 전 부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등 빙상 전 부분에서 금메달을 동시에 획득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밖에 없다.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등 설상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동계올림픽은 '선진국, 백인, 귀족'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특히 설상 종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스피드스케이팅도 장거리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 20위권 안에 랭크된

김연아 금메달, 자본과 주류의 인정

나라는 모두 서방진진국이다. 1992년부터 채택된 우리나라가 유독 강한 쇼트트랙은 '이방인의 스포츠'일 뿐이다. 작년 하나, 1992년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가 미국 덴버에서 있었다. 우리나라는 남자 전 종목을 석권하고, 여자부본도 개인종합 1위를 했다. 그럼에도, 당시 개최 도시 덴버의 지역신문에서도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다. 그래도 세계선수권인데 개최도시, 지역 언론에서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백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쇼트트랙은 동계종목 중에서도 소외받는 종목이었다.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김연아의 올림픽 금메달이 가지는 함의는 서구 주류 언론의 관심이다. 역대 동·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금메달을 땀지만, 서구 주류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환영조의 금메달마저. 전통적으로 올림픽에서, 서구 특히 미국인들의 저녁밥상머리에 올려지는 종목은 하계올림픽에서는 육상, 수영, 체조 등이며, 동계올림픽 종목은 피겨와 알파인 스키 등이다. 고객을 중점권을 지불하는 서구 메이저 방송은 철저히 상업적이다. 오직 관심 있는 종목에만 조점을 맞추며 마련이다. 따라서 국내언론도

이러한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올림픽 금메달도 '가치와 금전'에서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소 수영과 피겨 스케이팅을 좋아해서, 김연아와 박태환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이 서구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더 열광하는 것이다. 변방은 항상 주류의 관심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 주류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끼리의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으니까. 스포츠는 자본과 결합하면서 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력만큼이나 상업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가장 먼저

간파한 곳이 스포츠마케팅 회사이다. 사실 김연아와 박태환은 소속사가 같다. 프로선수가 아닌 김연아와 박태환을 몇 년 전에 입도선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얼마나 큰 가치를 생산할 것인지 이미 기업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돈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의미가 있건 무의미하건 그건 운명이다. 따라서 스포츠에서도 종목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쪽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해도 '뿔주리' 상할이고, 한쪽은 등장만으로 돈이 몰린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만든 구조이다. 동계스포츠는 근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재원이 많이 든다. 자연환경도 따라야 하고, 장비도 고가(高價)이다. 따라서 저변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설상 종목은 훈련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자연환경이 따라주지 못한다. 경기력 수준을 높이려면 최소한 10년여 더 필요하다.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건 그래도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쇼트트랙과 같은 빙상부분이다.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는 빙상 전 부분의 금메달획득이고, 어쩌면 김연아 때문에 한국도 동계스포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류사회에 처음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이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바닥권 전남 초·중·고 학력 이대론 안된다

전남지역 학력 수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학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각 14위, 중학생은 꼴찌였다. 특히 중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교육 10명 가운데 1명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이 전남지역 초·중·고생의 학력이 바닥권을 기고 있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 탓이 크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학이 갈수록 급증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학력저하를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남보다 결코 교육환경이 낫다고 볼 수 없는 강원과 전북 등보다 훨씬 뒤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도서학교인 완

도 고교고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아 전국 우수학교로 선정됐지 않은가. 학력 저하원인을 환경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예기다. 전남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 실제로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전남인구의 타지역 유출현상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낮은 학력이 주요인 중 하나다.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전남지역 성장과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행히 전남의 기초학력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졌다.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따라서 도 교육청이 지역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낱알이 분석해 근본적인 학력 신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 학교·지역사회·학부모가 합심해 전남교육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 '지역주의' 발언 사실인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출입하는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지역이 역사적 운운하며 다른 지역보다(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더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대구·경북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특히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며 "그런데도 고향인 대구·경북에서(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일자 경북일보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이 이를 경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 수석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언론의 논조가 다소 지나친다는 정도로 사석에서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발언의 건위

가려져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수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가 '지역주의'를 인정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특정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대목에선 할 말을 잃게 된다. 지난해 대구시와 유치 결함을 벌여 탈락한 광주시와 지역민의 입장에서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대형 국책사업이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 결정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역대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정치적인 편향에 의해 우리는 차별과 갈등을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이 수석의 발언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은 그가 바로 대통령의 '입'이라는 데 있다. 지역주의를 조장한 정부라면 과거정부와 다를 바 없다. 국정조사라도 동원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의료 칼럼

김재봉



요즘 라섹, 라식, 안내렌즈삽입술 등을 이용해 시력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왜 이렇게 많아졌나 생각해 보면 라식이란 시력교정술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년 이 지나 안정성을 입증받았고, 주변에서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라식이나 라섹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또 야외활동이 늘면서 요즘에는 나이가 있는 40대나 50대 사람들도 안경을 벗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이유

노안이 진행되는 나이가 가까워져서 안경을 벗으면 돋보기를 착용하고, 수술할 수 나이도 멀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또한 안경을 착용한 지 오래돼서 지금 와서 수술을 할 경우 미용상 얼굴과 어울리지 않아 수술생각이 없어진 이유이다. 많은 의사들이 라식, 라섹 수술만큼 결과가 좋은 수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안전하고 결과가 좋은 수술이다. 두 번째로 라식수술 후 몇 년마다 다

라식의 오해

때문인 것 같다. 요즘에는 심심찮게 라식수술을 받은 임마가 딸을 데려와서 안경을 벗겨주고 싶다고 상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듯 시력교정술이 일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으며,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많다. 첫 번째로 내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왜 선생님은 라식수술 안 하세요?"이다.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관계로 정말 시력교정술이 좋으면 안과 의사들도 수술받을 텐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시력교정술을 받고 있다. 안과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나한테 수술받고, 시력교정술을 시행하고 있는 안과 의사도 있으며,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안과 의사들의 수술체험기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일단 안경이 불편하지 않아서 시력교정술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 가끔 수영장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 외엔 큰 불편을 못 느낀다. 또한

시력교정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수술로 평생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주 드물게 근시가 조금 진행돼 재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다. 라식수술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다 재수술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드물게 눈이 다시 나빠지면 재수술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로 라식수술을 받았으면 백내장 수술을 못한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라식수술 후 백내장수술은 당연히 가능하고, 일반사람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라식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라식수술을 받았으면 안이 빨리 온다는 말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약한 근시가 있는 사람이 라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안경을 착용하게 되고, 라식수술을 받았으면 평생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다 노안이 오면 책 볼 때 돋보기를 사용하면 된다. 50세가 넘어 노안이 온 사람들도 근시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하면 평생시에는 안경이 필요 없고, 독서시에만 돋보기를 쓰면 된다. <밝은 광주 안과 원장>

기고

장경화



지난 1981년에 완공했던 전남도지사 공관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어두운 상징물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곳이 어떠한 시설인지 모르던 대학생의 필자는 상상한 수송로나 군 시설물도 이해하였고 한참 지나서야 도지사 공관으로 지방청화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도지사공관은 광주 연금관리공단에 매각되고 아파트를 지으려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광주시에서는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매입했다.

삼·월'이라는 기획전을 갖는다. 전시장의 밝은 빛깔으로 반박하게 될 것이고 전시장 안은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된다. 늦은 밤에 찾는 관람객을 위한 야간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연중 미술강좌인 "현대미술과 인문학"이라는 강좌는 이해가 어려운 현대미술을 보다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재미있게 이해시키기 위해 매월 2

자연과 예술이 숨 쉬는 상록전시관

만일 이곳에 '아파트가 건축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광주시가 많은 일들을 잘 하려 왔지만 이번 일의 경우도 역시 한 일이었다. 이후 예술계의 여러 장르에서는 욕심을 내면서 용도에 대해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결국 2008년 9월 상록전시관(미술관)으로 리모델링, 개관한 한전은 광주시가 두 번째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는 필자가 미술인이고 시립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술관 이외의 다른 공간으로는 적절치 않고, 광주가 문화도시로의 역할을 함에 있어 시기에 걸맞은 선택과 집중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1년이 넘게 상록전시관을 매일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운동장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상록전시관은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 특히 3월이 되면 만발하게 되는 벚꽃과 함께 구경하는 시민들로 늦은 밤까지 이곳 상록전시장과 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때를 맞춰 상록전시관에서는 '춘·

번째 주 금요일 권위 있는 국내·외 심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강좌는 시민들에게 미술관의 활동 중 가장 소중한 교육활동으로 문화시민으로 교육과 미술관 메니어를 육성시키고 자는 노력의 일환이다. 곧 미래의 문화광주를 위한 시민을 위한 교육이고 투자인 셈이다. 그리고 자그마한 잔디광장에서는 여름과 가을밤에 '야외음악회'를 지난해에 이어 준비하고 있다. 이제 3월이 오면 만발하는 다양한 꽃들과 함께 도심 속에 자그마하지만 아름다운 전시관과 공원은 유럽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상록전시관의 전 직원은 개관 2년째를 맞이하여 진정한 주인인 광주시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서비스 제공 위하여 거듭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상록전시관의 다양한 활동은 시민에게 좋은 이미지가 홍보가 되면서 점차 각인되어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 광주의 문화적 자존심으로 자리 잡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곧 시민에게 사랑받지 못한 미술관은 미술품의 무덤, 그 이상의 의미는 없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장>

無等鼓

이토록 막말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때가 있었나 싶다. 39세의 판사가 69세의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라고 면박을 주고, 검사는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며 호통이다. 교사는 자기 반 학생들에게 "인간 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콧 빠야 죽어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한다. 인격 침해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TV를 봐도, 컴퓨터를 켜도 막말이 넘쳐난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막말 시리즈가 화제가 되고, 막말은 개그의 한 장르로까지 상승을 했다. 막말은 청와대까지 흔들고 있다. 이동관 홍보수석이 TK(대구·경북) 관련 발언

를 부은 격이다. 청와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짧게 뉘고 있지만, "머슴이 주인을 욕한 꼴"이라며 반박이 거세다.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말 한마디 되는 경우가 흔하다. "엄마 손은 약손"하며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길에 배앓이가 나았던 경험이 우리에겐 있다. "좋은 대학에 붙었다지" 혹은 "장가 갔다지"와 같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새해 덕담을 하는 것도 말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다. 악담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가면 낫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세월이 가도 잘 아물지 않는다. 이 모두가 말의 중요성의 일깨우는 교훈이다. 옛 성현들이 말의 품위, 즉 언품(言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주경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음란 공연·뮤직비디오 청소년 보호책 지급

요즘 가수나 탤스그룹의 뮤직비디오가 너무 선정적이다. 얼마 전 인기 아이돌 가수 지드래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다. 12세 관람가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고 청소년 금지곡을 부른 혐의라니 그런 것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건전한 방식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것이

위험하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음악이 비주요로만 전락하는 과정이 계속 벌어지게 놔둔다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음란 뮤직 비디오들을 손봐야 하며 이런 게 인터넷으로 마구 떠다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김점숙·광주시 북구 충효동>

운전중 문자 보내는 행위 강도 높게 처벌 해야

호남고속도로를 운전중 앞차가 느릿느릿 주행했다. 과속도 안 좋지만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다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건 아는 상식이다. 시속 80킬로 수준으로 달리며 도무지 속도를 안내길래 추월을 하고 싶었지만 주말이라 추월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가리를 두고 운전하다 속도를 내 결국 옆 차선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지나가며 봤더니 그 운전자가 휴

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화가 났다. 자기 때문에 뒷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메시지를 보내느라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었잖나. 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이런 운전자들에게는 휴대폰 통화의 몇 배 높은 벌칙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유지호·목포시 축복동>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